심판의 날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1월 3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14편을 모두 읽고 8편을 다뤘으며, 6편(에콘브라우저의 갤럽·함대 배치·예측시장 차트 글, 카페 하이에크 '오늘의 인용', 마지널 레볼루션의 영화 리뷰와 월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 다만 갤럽 소비자심리 하락, 예측시장 확률, 노르드하우스 추모 링크는 각 꼭지의 메모로 흡수. 8+6=14.

11월 3일은 미국 중간선거일이었다. 유권자가 심판을 내리는 날, 시장도 심판을 내렸다 —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를 넘게 빠지며 '조정'의 정의를 채웠다. 학술지는 전임 편집장의 논문 네 편을 포함한 열세 편에 철회 판정을 내렸고, 한 경제학자는 자기 직업 전체의 사회적 지위가 심판받고 있다고 썼다. 전쟁의 확전 여부도 선거 다음 날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오늘의 글들은 판정을 내리는 자리와 판정을 받는 자리에 관한 것이다.

1. 유권자의 심판을 앞두고 — 중간선거 전야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인용한 찰스 레인의 칼럼(워싱턴포스트)은 선거 전야의 공화당 진단이다 — 관세 전쟁(수십 개국에 최고 12.5%의 수입 할증, 캐나다에는 2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50% 부과와 캐나다의 동률 보복)이 메인·미시간 같은 상원 경합주의 비용을 밀어올렸고, 후보 선택 개입이 노스캐롤라이나(틸리스 현역의 불출마와 와틀리의 열세)와 텍사스(팩스턴의 고전)에서 자당에 해가 됐다는 분석이다. 댄 해넌의 칼럼(2차 인용)은 다른 축의 수치를 낸다 — 2016년에 "오바마가 국가부채를 두 배로 늘렸다"고 공격했던 트럼프가 이제 전임자 전부의 차입 합계를 넘겼다는 것. 이 수치는 칼럼의 주장으로 전하며 독립 확인하지 않았다. 일리야 소민(조지메이슨대 로스쿨)의 글은 법리 꼭지다 — 캐나다 관세의 근거로 동원된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가 없고 1962·74년 입법으로 폐지됐다는 연구가 있으며, 설령 유효해도 '차별적 정책'에만 쓸 수 있는 조항의 요건을 캐나다 조치들(주정부 주류 매장의 미국산 구매 중단 등)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해석]** 선거일 전날의 이 블로그는 반(反)트럼프 보수·자유지상주의 진영의 최종 변론으로 채워졌다. 칼럼 인용 모음이라는 성격상 한쪽 진영의 정리이며, 그 진영의 목소리로 전한다.

[사실] 같은 날 에콘브라우저는 두 장의 차트로 선거 전야의 분위기를 찍었다 — 갤럽의 10월 소비자신뢰는 하락했고(미시간대·콘퍼런스보드 지수와 같은 조정으로 비교한 도표), 예측시장은 선거 전날 오후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에 약 3대 1의 확률을 매겼다. 차트만 실린 글이라 인용 이상의 해설은 없다.

---

2. '확전 전야' — 이란 공습과 유가

[사실] 에콘브라우저가 전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2차 인용) — 미국이 이란에 새 공습을 가했고, 실은 수 주째 소규모 타격이 이어져 왔다(케슘섬 부근 폭발 보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공격 차단이 명분). 정부 관리들은 주요 전투 작전 재개 의사를 보이지 않기 위해 이 전투를 의도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했고 이겼다… 수개월째 전투가 없었으니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블로그 저자의 판단은 명시적이다 — 선거 이후 대규모 확전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해석] 선거 일정과 군사 작전의 타이밍이 맞물린다는 관찰은 저자의 것이다. 시장은 다른 쪽에 베팅했다 — 같은 날 블룸버그 인용으로, '평화 협상 진전' 보도에 원유 가격이 내렸다(3번 꼭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대가 같은 하루에 공존한다. 민감한 군사·외교 현안으로, 보도 내용과 블로그 저자의 판단을 구분해 전하며 이 보고서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

---

3. 시장의 심판 — 나스닥, 조정 진입

[사실] 에콘브라우저의 짧은 시황 글을 시장 보도로 교차 확인했다. 11월 2일 나스닥 100 지수는 1.4% 내려 27,989.82에 마감,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31,224.69)보다 10.4% 아래 — 고점 대비 10% 하락을 뜻하는 '조정(correction)'의 정의를 채웠다. 올해 세 번째 조정이다. S&P 500은 0.5% 하락해 고점 대비 약 3.6%, 다우는 오히려 0.4% 상승 — 하락이 기술주에 집중된 '좁은 매도'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월요일 -3.4%에 금요일 -7.2%를 더해 사흘 새 약 12%가 빠졌고, 6월 이후 두 번째 약세장(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에 들어섰으며 2025년 6월 이후 처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했다. 보도들이 짚는 배경은 빅테크의 막대한 AI 투자가 언제 회수될지에 대한 회의, 메모리 칩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우려다. 라운드힐 파이낸셜 대표의 말이 분위기를 전한다 — "유가 하락은 기술주에 순풍이어야 하는데, 원유가 폭락해도 장 초반 상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주 매도 이후 확신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보여 준다". [해석] 10월 31일 꼭지(인텔 -28.6%, '정부 주식 포트폴리오' 사설)에서 이 리포트가 추적해 온 'AI 투자 회수 의문'의 연속선이다. 선거 전날·실적

발표 시즌(AMD·퀄컴·엔비디아 대기)에 겹친 조정이라, 시장의 다음 판정은 실적이 쥐고 있다.

---

4. 팁의 경제학 — 누가 팁을 가져가는가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새 논문(공저자 중 한 명이 시카고대에서 올해 학계 구직 시장에 나온 신진 연구자)은 미국 2만 개 사업체의 매출 단말기(POS) 기록과 급여 대장을 연결해, 팁이 고객의 결제에서 노동자의 소득까지 흘러가는 전 과정을 추적한 드문 실증이다. 발견 네 가지. 첫째, 팁은 매출의 거의 일정한 비율 — 즉 시간당 소득이 매출과 함께 움직인다. 둘째, 팁을 받기 시작한 사업체는 기본급을 낮춰 팁 1달러당 23~33센트를 회수한다. 셋째, 팁은 노력에 보상한다 — 다른 사업체의 고객 지출로 만든 수요 충격이 닥쳤을 때, 팁 사업체의 매출은 비팁 사업체의 거의 두 배로 늘고, 기본급과 가격은 반응하지 않으며, 시간당 산출이 더 많이 오른다(노동자 한 명 한 명이 더 생산적으로 일한다). 넷째, 그래도 모든 사업체가 팁을 도입하지는 않는다 — 고객이 팁을 적게 주는 곳에서는 이득이 작기 때문이다. 수요 충격 추정치로 보정한 모형은, 팁이 잘 걷히는 사업체에서 팁이 일자리의 가치를 약 절반, 기업 이익을 약 30% 높인다고 계산한다. **[해석]** '팁은 손님이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라는 직관의 첫 번째 수정 —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기본급 인하로 기업에 귀속되고, 그래도 노력-보상 연결이 만들어지기에 노동자와 기업 양쪽에 남는 게임이라는 결론이다. 최근 여러 산업으로 팁이 퍼지는 현상의 설명으로 제시된다. 저자 소개 글이므로 논문의 주장으로 전한다.

---

5. 경제학자의 지위는 하락하는가

[사실] 코웬의 새 칼럼(프리 프레스 게재)의 발췌다. 대비는 1960년대 — 케네디·존슨 행정부에 들어간 토빈, 솔로, 애로(셋 모두 훗날 노벨상), 오컨, 헬러 등 당대 최고 거시경제학자들의 정부 진출, 새뮤얼슨의 자문, 1964년 감세 설계. 1980년대에도 레이건은 하버드의 펠드스타인을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앉혔고 그 아래에 크루그먼과 서머스가 있었다. 그때는 엘리트의 시대였다 — 과학에 대한 사랑, 달 착륙, 그리고 "인터넷에서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않던" 엘리트에 대한 관용. 오늘의 하방 압력은 여러 갈래다 — 국립과학재단(NSF)의 사회과학 예산 삭제안, 대학 등록 감소 전망, 정치화됐다고 인식되는 학계, 그리고 "사람 수학자가 못 푸는 정리를 증명하듯 사람 경제학자보다 나은 경우가 잦아진" AI 모델. **[해석]** 이 리포트가 최근 전한 노르드하우스 부고(10월 30일 서거)와 같은 거울의 다른 면이다 — 한 세대의 경제학이 정책의 중심에 서 있던 시대의 끝을, 부고와 지위 논평이 함께 기록한다. 생략한 월요일 링크 모음의 일곱 번째

항목이 니컬러스 데커의 노르드하우스론임을 메모해 둔다(2차 인용, 미열람). 칼럼의 진단은 저자의 것으로 전한다.

---

6. 학술지의 자기 심판 — 전임 편집장 논문 포함 13편 철회

[사실] 리트랙션 워치 보도 — 엘스비어의 의생명 컴퓨팅 학술지(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가 2019~2023년 게재 논문 13편을 철회했다. 사유는 의심스러운 저자 변경, 저자·심사자 연구와 무관한 인용, 자기표절. 13편 중 4편의 저자에 2021~2024년 공동 편집장을 지낸 중국 원저우대 연구자가 있고, 그중 2021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영상 논문은 107회 인용됐다. 철회 통지 3건은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 두 명이 무관한 참고문헌 삽입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 심사자를 통한 인용 강요의 정황이다. 다섯 번째 논문에서는 이 전 편집장이 공저자와의 공동 출판 이력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배정받아 처리했다. 해당 연구자는 인용이 수정 과정의 서론·관련연구 확장 중 추가됐고 심사자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제공한 것과 승인을 얻은 것은 다르다는 구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는 9월에 편집상 이해충돌 등으로 100편 이상을 철회했다. **[해석]** 출판 윤리 사건의 반복 패턴이 숫자로 드러난다 — 편집 권한, 심사자의 인용 요구, 저자 명단 변경이 한 권의 저널에서 겹칠 때 철회는 '무더기'로 온다. 전임 편집장 본인 논문이 포함됐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다.

---

7. 글로벌 팩토리에서 글로벌 오피스로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초록을 옮긴 리처드 볼드윈의 새 논문 — 세계화의 최전선이 제조업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서비스 GVC로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규모로는 여전히 '공장'이 크지만 성장 속도는 '사무실'이 훨씬 빠르고, 중간재 무역 지도에서 공장은 중국 중심의 블록형, 사무실은 미국 중심의 별형 구조다. 중력 모형 추정으로 거리는 사무실 수출에 덜 중요하지만 시차는 중요하다 — 시간대가 한 시간 멀어질 때마다 사무실 수출이 약 4% 줄고, 공장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 가장 큰 수치: 2008~2022년 전 세계 수출 연관 순 일자리 창출 전부가 제조업이 아니라 디지털 전달 서비스에서 일어났고, 무역 연관 서비스 일자리의 평균 보수가 더 높다. 논문은 '제2의 언번들링(생산의 공간적 분리)'이 동력을 잃어 가는 동안 '제3의 언번들링(서비스의 분리)'이 가속한다고 정리하며, "무역의 미래는 서비스"라는 추측으로 닫는다. **[해석]** 관세와 제조업 리쇼어링이 정치의 중심 어휘인 시기에, 실제 일자리 증가가 일어난 곳이 디지털 서비스라는 정량 결과는 1번 꼭지의

관세 논쟁과 나란히 놓아 읽을 만하다. 초록 인용이므로 저자의 주장으로 전한다.

---

8. 자율주행차를 소유한다는 것 — 운전에서 감독으로

[사실] 타바록의 테슬라 구매 2,000마일 사용기다. 완전자율주행(FSD)이 전체 주행의 약 95%를 담당했고, 그의 표현으로 선택은 "차를 살 것인가, 같은 값에 차+운전기사를 살 것인가"였다. 요점은 '감독'이 '운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다는 것 — 밤길의 낯선 워싱턴 DC 도로에서 무결하게 운행했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분에서는 헤매지만(구글 지도도 마찬가지) 정지한 스쿨버스와 도로 한가운데 서서 교통을 멈춘 경찰관에게는 정확히 멈췄다. 동승한 AI 비서(그록)로 운전 중 팟캐스트에서 놓친 국제거시경제 모형을 복습하고 이메일을 받아쓰기까지 했다. 비용은 FSD 월 99달러 + 프리미엄 연결 월 10달러로, 절약한 주유비와 거의 상쇄된다는 계산. 주행거리 불안에 대한 답은 '차가 아니라 차+충전망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 — 목적지를 넣으면 차가 경로상 충전소를 찾아 스스로 가서 주차까지 한다. 그는 이 혁신의 제도적 조건도 짚는다 — 교통부(DOT)는 안전 규격을 정하되 출시 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사후에 리콜과 벌금으로 집행하는데(사후 규제), 항공 규제(FAA)는 설계 승인에 10년 이상 걸리는 사전 규제라는 대비다(맥스웰 타바록의 글 인용). **[해석]** 어제 꼭지(정부 통계의 AI 명칭 변경)에 이은 AI 실물 도입의 생활 보고서로, 저자 개인의 경험담임을 표시한다. 사후 집행 규제가 혁신 속도를 가능하게 했다는 대비는 이 블로그가 반복하는 규제 설계 논점과 맞물린다.

---

9. '여성'의 다섯 가지 기준 — 한 철학자의 공개서한

[사실] 크룩트 팀버에 실린 소피 그레이스 채펠(세인트앤드루스대 철학자, 트랜스 여성)의 J.K. 롤링에 대한 공개서한 — 롤링이 2020년 에세이의 갱신판을 낸 데 대한 답신이다. 서한의 구조는 논증이다. 첫째, 그는 논쟁 양쪽의 분노를 각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한쪽은 트랜스 사람에 대한 부당함에, 한쪽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분노하며, 후자에 대해 그는 세계보건기구 통계(전 세계 여성 약 3분의 1이 일생에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 대부분 현재 또는 전 배우자·파트너·가족에 의한 것)를 인용해 가정이 통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지적한다. 둘째, 그는 "남성을 여성 공간에서 배제하라"는 요구가 실제로는 모든 남성이 아니라 '눈에 띄는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여성처럼 보이는 사람'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오히려 여성에 대한 새로운 폭력 위험을 만든다고 쓴다. 셋째, 핵심 논증 — 일상 영어에는 '여성'의 기준이 적어도 다섯(외모 확인, 신체 검사, 의학적 검진, 유전자 검사, 출생증명서)이며, 다섯 기준은 서로 다른 집합을 가려 내고(예: XX 염색체가 아닌 시스

여성이 존재하고, 영국 성별인정법상 출생증명서는 변경 가능), 따라서 '배제'를 집행하려면 어느 기준을 쓸지, 그리고 얼마나 침입적으로 확인할지를 답해야 한다는 것. 넷째, 자기선언(self-ID)을 법제화한 국가들(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등 열 곳을 열거)에서 그가 예측된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국제 비교. **[해석]** 논쟁의 정치적 함의가 큰 주제로, 서한의 논증 구조를 저자의 것으로 표시해 전하며 이 보고서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 철학 블로그의 손님 글이 학술적 논증 형식을 갖춘 사례로 기록한다.

---

10. 양파 선물 금지법 — 67년 된 금지의 재심

[사실] 카페 하이에크가 소개한 워싱턴포스트 기사 — 미국에서 선물 계약 거래가 금지된 유일한 농산물은 양파다. 1958년 양파선물법으로 금지됐고, 기대 양파를 거래하면 최고 5,000달러 벌금이다. 발단은 1955~56년 두 상품 거래인의 시장 구석(corner) — 양파를 대량 매수해 가격을 올린 뒤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그 하락을 스스로 실현시켰다. 금지 당시 양파 재배업자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가격 지지를 받아 본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이 한 가지 요청만을 들어 달라고 했다는 의회 기록이 인용된다. 기사는 이 금지의 폐지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다룬다. **[해석]** 하루의 무거운 꼭지들 사이의 경제사 곁가지 — 1950년대 시장 조작 사건 하나가 만든 규제가 67년째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규제의 관성과 '한 번 만든 기계는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반례(이 경우엔 오히려 해소 시도)로 읽힌다. 11월 3일 꼭지의 부유세 기준 인하 우려(11월 2일 리포트)와 묘한 대칭이다.

반드시 읽어 볼 원문

· 중간선거 전야 링크 모음 (레인·해넌·소민·볼드윈 초록) — https://cafehayek.com/2026/11/some-links-3226.html

· 나스닥 조정 (에콘브라우저)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nasdaq-correction

· 시장 검증 보도 (비즈니스 인사이더) — https://www.businessinsider.com/nasdaq-correction-decline-ai-spending-tech-stocks-market-outlook-midterms-2026-11

· '확전 전야' — 이란 공습 보도 소개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on-the-eve-of-escalation

· 팁의 경제학 (신규 논문 소개)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the-economics-of-tips.html

· 경제학자의 지위는 하락하는가 (코웬)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are-economists-declining-in-status.html

· 컴퓨팅 학술지 13편 철회 (리트랙션 워치)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02/computing-journal-retracts-13-papers-including-four-from-past-eic/

· 자율주행 테슬라 사용기 (타바록)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thoughts-on-owning-a-self-driving-tesla.html

· J.K. 롤링에 대한 공개서한 (채펠) — https://crookedtimber.org/2026/11/03/an-open-letter-to-jk-rowling-from-sophie-grace-chappell/